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하라”

#### 인천서 첫 집단 소송... 결과 주목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가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입주인 800여명이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했다가 같은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국적으로 27만명에 달해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연)은 30일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제외자 869명을 대신해 인천시·부평구·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인천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국회가 과실로 위헌법률을 제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집행하면서 이의제기 절차 안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명백하다’면서 ‘과고측은 이같은 손해에 대해 원고들에게 119만~298만원씩 총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전국적으로 34만여건(약 4천900억원)이 부과됐으며, 이를 납부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80% 이상이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용지부담금=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학교용지 조성을 위해 내는 부담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그 근거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광주시의 경우 부과수 조례가 시행된 2002년 10월부터 3천351건(55억3천600만원)을 부과했으나, 올 현재 2천537건(42억8천500만원)을 환급하지 못했다.

### 민주당 도의원 공천 탈락 반발

#### 화순군 전 의원 ‘斷指’

민주당 전남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화순군의원 김도 전 의원이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

30일 화순지역 당원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중앙당이 도의원 공천을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후 5시께 민주당 화순지역 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왼쪽 엄지를 잘랐다는 것이다.

목격자 A씨는 “김 전 의원이 위원장실에서 당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칼로 왼쪽 엄지를 잘랐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전 의원이 지난 2004년 총선 때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을 적극 도왔는데, 이번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하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의원은 도의원 출마를 위해 최근 군의원을 사퇴했으며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

/최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 네티즌 ‘스포츠 중계’ 접수하다

포털사이트 통해 축구 등 캐스터 변신  
경기 내용 실시간 문자·댓글로 중계  
독일 월드컵 다양한 블로그 중계 계획

30일 새벽 4시에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웨스트햄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 MBC ESPN을 통해서만 목격 생중계된 이 경기는 각 포털 사이트의 ‘문자중계’를 통해서도 안방에 전달됐다. 10초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문자 중계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댓글로 중계 내용을 뒷받침하며 ‘축구 캐스터’를 자칭했다. 네티즌들의 댓글 중계는 국내 스포츠에서도 통용된다.

때로는 중계의 ‘오류’를 짚어내기까지 한다. ‘맨체스터 Utd’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포메이션은 4-4-2이고, 박지성은 중앙수비기가 아닌, 왼쪽 공격”이라며 포메이션을 4-3-3으로, 박지성을 중앙 미드필더로 표기한 포털사이트를 꼬집었다. 이날 박지성 경기에 올라온 댓글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0여개. 지난 27일에 열린 버밍엄전에는 530여개, 12

일 뉴캐슬 전에는 1천083개가 달렸었다.

유명 TV 스포츠 캐스터의 중계 방송을 쫓아다니던 네티즌들이 캐스터로 변신하고 있다. 포털사이트가 중계하는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서 실시간으로 경기 내용을 알리고 해석하는 등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네티즌들의 스포츠 중계는 지난달 한국을 뜨겁게 했던 제1회 월드컵베이스볼 클래식(WBC)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한-일전 때 네이버에 달린 댓글은 무려 11만3천700여 개. 이후의 자체조사 결과, 한국과 미국의 8강전에는 TV 시청자 140만명(TNS미디어코리아 집계)을 웃도는 160만 명이 접속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다음·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네티즌 중심의 인터넷 스포츠 중



포털사이트들은 스포츠 섹션의 별도 창을 통해 네티즌의 ‘댓글 중계’(사진 아래쪽)와 10초 단위로 업데이트 하는 ‘문자중계’(오른쪽 위), 선수 위치(왼쪽 위)를 제공한다. 사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박지성이 출전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30일 경기의 인터넷 중계.

계가 새롭게 떠오르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이다. 일부 포털은 중요 경기를 앞두고 온라인 생중계 관권을 독점으로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최고 이벤트가 될 2006 독일 월드컵을 대비해 ‘가자! 독일로’라는 특별 섹션을 마련했다. 이미 ‘네이버 스포츠’에서는 야구, 축구는 문자중계 서비스, 프로농구 경기는 실시간 동영상 중계를 하고 있다.

다음의 ‘스포츠 섹션’에는 스포츠 뉴스와 포토 뉴스가 각각 나뉘어 제공된다. 네티즌은 이 공간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도 보낸다.

다음은 2006 독일 월드컵의 열기를 네티즌들에게 전달할 ‘독일 블로그 원정대’를 모집 중이다. 이들은 다음으로부터 항공비와 현지 체류비 일체를 지원받아 사진과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블로그 중계’를 펼칠 계획이다.

네티즌들도 이러한 역할 변화를 즐기고 있다.

‘drim2’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댓글 중계에서 티격태격하는 넉넉(네티즌)이 스포츠의 진정한 광팬”이라고 말했다.

한 포털 관계자는 “인터넷 중계 및 참여가 앞으로 대체로 자리잡게 되면 TV 방송사의 스포츠 캐스터와 해설자는 아마 ‘묵이 잘리게 될 것’”이라고 웃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무등산 중심사 지구 환경복원사업 기공

광주시는 30일 오후 중심사 주차장에서 ‘무등산 중심사 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시는 2008년 말까지 500억 원을 들여 3단계에 걸쳐 이곳 주민과 상가를 산 아래로 이주시키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선거 운동원 등 3명 구속 목포지청, 당비대납 혐의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30일 당비 대납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민주당 영암군 수 예비후보 장모(59)씨의 선거 운동원 임모(4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6~8월 민주당 기간당원 100여명을 모집, 전남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면서 당비 2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비 대납과 관련해 장씨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지 여부와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일 장씨의 사무실과 집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나원침 (6793) 김창두



연예계 동림회  
**대주 피오레**  
1,300여 배우 중 35명만 3534명  
문의 (062)366-4220

### 광주시, 시민들에게 누드 사진 전송

○광주시가 일부 시민들에게 누드 사진이 포함된 ‘시장 소식’을 전자우편(e-메일)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같은 사진을 실어 물의를 일으켰다.

○시는 지난 29일 e-뉴스레터 회원 10만5천여명에게 시장 소식을 전송했는데, 이 가운데 ‘아이리브 포토’란 기승과 문부를 노출한 채 관능적인 포즈를 하고 있는 여성 누드 사진 2장이 포함된 것.

○시는 이들 사진을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게시해 조회 건수가 1천건이 넘어서면서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삭제한 뒤 “아마추어의 작품으로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

○시민들은 “자치단체가 성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누드사진을 e-메일로 전송하고 홈페이지에 실기까지 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포털사이트에선 ‘광주시 누드’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폭발.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만에 철회

지난 28일 광주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하남산단의 도로를 봉쇄했던 ‘전국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30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조합원 1천151명을 대상으로 파업철회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8.6%(905명)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사측인 극동컨테이너와 원정업체인 삼성광주전자가 광주에서 계약해지당한 조합원 51명과 전원 재계

약하고 운송료 인상을 노조와 합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 삼선전자의 물류를 총괄하는 ‘삼선 로지텍(주)’과 극동컨테이너와 함께 조합원 51명의 재계약 등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해 온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이르면 이날 밤부터 각 지부별로 현장으로 복귀해 31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14일부터 하남산단에 집결해 농성을 벌여왔으며, 28일 새벽에는 삼성광주전자 앞을 화물차로 봉쇄하고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당선확신!!**

선거제도개선  
선거제도, 선거법, 투표제도, 공직선거법, TV투표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117-061-626-4523-4  
117-017-603-652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연우개발 빌딩 관리사무소

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117-061-383-8283

삼보전기온플랜빌

삼우상사

117-077-278-4747  
233-8287  
524-8287